

여야 2강 구도에 무소속 3명 변수로

제19대 총선 속초-고성-양양선거구 후보군 드러나... 새누리당 정문헌·민주통합당 송훈석 공천

강주덕·손문영·황정기 무소속 출마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와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의 '2강' 구도 속에 강주덕·손문영·황정기 후보 등 무소속 3명이 변수로 작용하는 다자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관련기사 2면〉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공천발표를 통해 정문헌 후보(45세, 사진)를 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정후보가 2, 3위 후보들과 여론조사 지지도 조사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였으며, 전문성과 정책입안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공천발표 직후 정문헌 후보는 "지역발전을 희망하는 고향 분들의 뜻을 헤아리고 섬기겠다. 속

초, 고성, 양양의 스마트 도약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19대 총선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며 "지지와 성원에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공천 소감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7일 모바일 투표와 8일 현장 투표 등 국민경선을 통해 송훈석 후보(61세, 사진)를 공천자로 선출했다. 경선 결과 송후보는 모바일 투표에서 1,916표 현장 투표에서 335표를 얻어 모바일 811표 현장 69표를 얻은 이동기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공천자로 결정됐다.

공천 확정 직후 송훈석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국민경선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정당당한 후보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힘있는 4선 의원이 되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새누리당 정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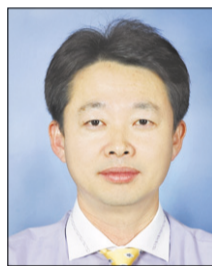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송훈석



무소속 강주덕



무소속 손문영



무소속 황정기

등 지역현안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속초-고성-양양선거구는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와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가 지난 17대 총선 이후 8년만에 '정치적 생명'을 건 재력들이 불가피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양당 후보자와 함께 무소속 후보자들도 선전을 다짐하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해온 황정기 후보(48세, 사진)는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본선

까지 변함없는 페이스를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

또 새누리당 공천에서 제외된 손문영 후보(60세, 사진)가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에 앞서 5일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강주덕 후보(58세, 사진)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손문영 후보는 6일 기자회견에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로 정문헌 전 국회의원을 공천한 것은 구시대적 공

천"이라며 "진정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역사적 선택의 심판이 광풍으로 불도록 유권자들만 바라보고 이 한 몸 던지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강주덕 후보는 "지역의 건전한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에게 심판받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했다. 강후보는 그러나 "송훈석 후보와의 단일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22~23일 후보자 등록 때 전체 후보자군에 다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최명호 기자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현재 명파리에서 농기계수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적기 영농 위해 농기계수리

고성군농업기술센터 2개반 6명 수리반 운영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기계순회 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개반 6명으로 수리반을 구성해, 3월부터 11월까지 114개리를 대상으로 현장기동수리 30회, 정기순회수리 170회 등 총 20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3월부터 5월까지의 경운기·이앙기·관리기 등 모내기철 현장 기동수리, 6월부터 8월까지

는 방제기·예초기 수리, 9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중심으로 수리사업을 펼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반상회보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일주일전에 마을이장에게 통보해 마을앰플을 이용해 방송하는 등 사전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241회의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영농경영지원과 영농기 농기계 사용 불편을 해결했다. 원광연 기자